

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37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éro@naver.com

## 미국의 대중성, 문화의 획일성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석호필'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무려 5백여 건의 기사가 뜬다. 두어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많은 기사가 게재되었다면 방송에서건 신문에서건 당신은 석호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지 않고 지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석호필을 모른다면 짧은 설명을 덧붙이자. 석호필은 미국드라마(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엔트워스 밀러 역)의 한국식 이름이다. '석호필(石好弼)'이라는 이름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도왔던 세브란스 의학교수 세균학 교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한국이름인데,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한 이용자가 마이클 스코필드를 석호필로 부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진 것이다.

### 석호필 전성시대

<육백만 불의 사나이>에서부터 <X파일>까지 우리에게 사랑받아 온 미국 드라마의 계보는 폐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드라마다. 왜냐하면 지상파 TV에는 아직 한 번도 방영되지 않았고, 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된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즌 브레이크>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다. 아니, 감옥에서 탈출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1시즌 22회, 2시즌 22회까지 이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감옥 얘기가 재미나 있겠는가. 아름다운 배경도 없고, 아름다운 여배우도 없고, 사랑과 이별, 출생의 비밀도 없는 드라마가? 그러나 막상이 드라마를 보면 그런 도식이 없어도 상상력만 있다면 충분히 뛰어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호필이 인기 검색어가 되고 그의 인기가 불붙게 된 것은 국내 의류업체 빈폴(BEAN POLE)이 웬트워트 밀러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광고촬영을 위해 그의 방한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그의 매력에 푹빠진 열혈 마니아들은 방한 소식에 환호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으로 그의 방한이 한 달 늦춰졌고 그 사이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지난 2월 설 명절에 맞춰 케이블채널 슈퍼액션에

서 22시간 동안 <프리즌 브레이크> 1시즌을 연속 방송했기 때문이다. 다른 드라마들과 달리 <프리즌 브레이크>와 <24시>는 각 에피소드별로 스토리가 단락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꽤 인처럼 몰입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그런데 마침 출근 부담이 없는 명절시기에 방영이 되었으니 잠도 안자고 하룻밤 하루 낮을 드라마에 몰입한 사람들은 단번에 석호필의 팬이 되었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1.54%(AGB닐슨 기준)를 기록, 전체 케이블TV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덕분에 한 달 후 방한한 이 배우는 국민같은 환대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 자본의 힘, 감각의 속도

우연히 빚어진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이벤트 뒤에는 자본의 순발력이 있다. 의류업체와 광고회사의 발 빠른 트렌드 읽기가 주효했던 것이다. 소비자들의 욕망을 먼저 읽어야 하는 마케터와 광고인들은 문화나 트렌드에 좀 더 예민한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이 많다. 광고인 중에는 신혼여행을 갈 때도 PMP를 챙겨두고 가서 미국드라마를 챙겨보는 열혈 미드족이 있다. 이들이 이런 이

벤틀를 구상했으리라. 또한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터넷과 케이블 TV, PMP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없다면 이렇게 순식간에 확산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UCC가 대중화되면서부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맥루한의 말대로 그야말로 지구촌(global village)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프리즈 브레이크〉는 1시즌이 끝나 DVD가 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마니아들은 2시즌 에피소드 전체를 이미 마스터했다. 이들은 월요일에 미국현지에서 방송되면 곧바로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 to peer)방식'으로 드라마를 다운받아 본다. 물론 불법이다. 이 방송은 하루, 아니 12시간 내에 자막작업이 끝나 한글자막으로 볼 수 있다. 자막작업은 마니아들에 의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어대사를 받아쓰고, 화면과 자막을 맞추는 싱크(sync)작업, 번역 및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초벌을 제작하고 수차례 수정을 통해 완성된다. 전문직, 학생, 유학생 등 다양한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자막작업에 참여한다.

이미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CSI〉 〈위의 주부들〉 〈그레이 아나토미〉같은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왜 미드족이 드라마에 빠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 소재의 다양성과 세밀한 심리묘사, 과학기술과 인간의 본성 등을 다루는 접근방식도 감탄스럽지만, 그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 품새를 보면 제작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미국 드라마는 기획 단계부터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다. 대형 시리즈는 한 시즌에만 중심작가를 축으로 100여 명의 전문 작가들이 매달린다. 제작기간만 몇 년씩 걸린 드라마도 있다. 미국 드라마가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된 직접적 계기는 〈CSI〉를 제작한 제리 브룩하이머 이후로 본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연이어 히트시킨 만들었던 잘나가는 영화 감독이 TV 드라마인 〈CSI〉시리즈를 제작한 것이 당시는 화제였다. 그러나 잠시의 외도라 생각했던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라스베이거스-마이애미-뉴욕 편 등 300편에 달하는 〈CSI〉 에피소드를 만들어 7년 넘게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 테러리스트보다 무서운 테러 공포

미국드라마 열풍이 우리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쳐두자. 그러나 미국드라마 열풍에 대한 우려는 분명 존재한다. 문화와 같은 상부구조는 그 무엇보다 유연해서 한미 FTA조약 같은 국제

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었다. 문제는 문화제국주의 이론대로 문화는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할리우드 영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시장인 미국드라마는 그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도 고스란히 전 세계에 전파한다. 대표적으로 ‘미드의 본좌’라고 불리는 <24시>라는 드라마는 상당히 위험한 드라마다. 미국 Fox TV의 드라마로 이미 6시즌, 즉 6년째 계속되는 이 드라마가 본좌인 이유는 폐인이 되기 딱 앞맞다는 뜻이다. <프리즌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시즌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진감있는 스토리, 스펙터클한 화면 뿐 아니라 반전의 묘미와 각 인물들 간의 긴장관계가 시청자들을 매료시킨다.

<24시>는 제목 그대로 하루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주인공 잭 바우어(Jack Bauer)를 중심으로 펼치는 액션 드라마다. 한 회분은 1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당연히 1시즌은 24화로 짜여 있다. 주인공 잭 바우어는 CTU(Counter Terrorist Unit)의 요원.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다. 잭 바우어는 무소불위의 살인기계다.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007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작전을 위해서

죽이고 고문한다. 그러나 대의명분이 가족의 보호와 미국 국민의 안전이므로 그는 애국자로서 중형무진, 불사신처럼 테러범을 찾아 휘젓고 다닌다.

잭바우어의 뒤에는 CTU의 정보기술, 컴퓨터 해킹, 국가보안자료, 감청자료, 위성사진, 교통사진 등 IT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제공하는 동료들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 첨단 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정보와 미국 전역을 감청하는 CTU는 어느 조직보다 막강해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대적점은 이라크, 러시아, 쿠바 등 미국이 규정한 적성국이 있다. 전 세계를 테러리스트로 보고 그들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하는 주인공의 지난한 여정과 애국적인 폭력은 지구방위대를 자처한 미국의 자화상이다.

### 영어의 압박과 세계화

혹시 우리의 젊은이들이 외국드라마에 빠져있는 이 사태를 통탄해마지 않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이 상황은 그들의 작품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모든 것은 영어가 성공의 필수조건이 되면서 자녀를 영어유치원, 외국어고등학교에 조기유학까지 보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의 영어 공부에 매진했던 부모들

덕분에 벌어진 일이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때문에 미국드라마는 외국어 학습용으로 종종 학원에서 사용했던 교재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교재로도 가장 많이 쓰인 것은 <프렌즈>라는 미국드라마다. 미국 드라마를 보고 미국 가요를 들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미국의 문화를 자문화만큼이나 문화지체없이 받아들인다.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주의라고 긍정적으로 볼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대중문화는 미국의 언어로 된, 미국의 문화와 가치가 담긴, 미국의 이익과 현실논리를 전 세계에 유포하는 동인이다.

미국드라마의 다양성은 역설적으로 문화의 획일성을 낳는다.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무소불위의 패권을 가진 미국이 무엇보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술과 문화다.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던 까닭은 미국이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똑똑한 우리의 신세대는 이런 대중문화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 서문에 이렇게 썼다.

“진정 효과적인 전체주의 국가는...인민 스스로 자신들의 예측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할 필요도 없는, 노예 상태의 인민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국가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전체주의 국가 안에서 선전담당 정부 부서들과 신문사 편집장들, 그리고 학교 교장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주지하다시피 이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나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의 핵심인 ‘자발적 동의’와 중첩되는 맥락이다. 문화와 같은 상부구조가 정치적, 경제적 세계화와 맞물려 돌아갈 때 그 결과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백)